



선교소식

샬롬!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교제가 있었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26일~30일, 5일간 애틀랜타 플래그십교회 청소년들과 김종규 목사님이 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타지에서 이곳에 방문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단기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엔세나다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땅이지만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땅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십여명이 모이는 교회학교 순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모이니 금방 마음을 나누었고 몸 된 교회로서 서로 기도로 중보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센터 벽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표현한 벽화를 그리며 그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소망하는 페인팅 시간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은 센터에서 멀지 않은 중증 장애인 시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기쁨의 찬양을 나누었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며 산책하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농장 거주지도 방문하였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선교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귀한 간증과 고백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귀했던 고백은 "나에게는 선교는커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짧은 선교의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인원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소식 마칩니다. gracias!

임주영 목사





삼성교회 소식

지난 3주간 삼성교회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성경공부(6/8, 6/15)와 새가족 환영회(6/22)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인원은 총 16명이 참석을 하였고, 서영민 목사님께서 성경공부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인원은 새가족 19명, 목회자 3명, 행정위원 6명, 구역장 7명, 새가족부원 4명 등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자기소개와 간증들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성교회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우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회 새가족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 1장 3-4절